

돼지의 새끼는 「동아지」?

조 명 래*

오늘날 우리 수의사들은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이 낳은 식민지유산과 해방후 물밀듯이 밀려온 외래문화섭취로 인한 동화로 우리말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외래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직도 송아지·강아지·망아지 대신에 仔牛·仔犬·仔馬로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꼭한자로 쓰고 싶다면 송아지는 犏牛로 바꾸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어사전에는 仔牛·仔犬·仔馬는 없고, 송아지·강아지·망아지와 개새끼, 仔豚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새끼'의 낱말을 찾아보면 "돼지 새끼"란 낱말의 사용이 가능할 뿐입니다. 또한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仔豚'도 '돼지의 새끼'를 뜻하는 적당한 우리말이 없었으므로 일본어로 대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어사전의 '자'字 낱말란에는 '仔'字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존심을 걸고 새로운 낱말(신조어)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감을 느낍니다. 또한 단순히 '仔'字만 붙이기만 하면 되는 일본어의 단순문화를 경원시하고, 유구한 우리 전통문화의 우월성과 다양함을 표출하기 위해서라도 '돼지의 새끼'를 뜻하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때마침 최근에 식자화된 어느 학회지에서 '돼지의 새끼'를 '돼지아지'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조어 창조에 앞장선 그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만 과연 그 낱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러가지 국어사전을 들춰 동물에 관련된 낱말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우선 동물명칭(호칭)에 관련된 우리말 낱말(표1)과 접미사「-아지」의 뜻과 사용된 어간의 특징(표2)을 살펴 보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새끼이름을 보면 '소'에 관련된 낱말들은 송아지의 성장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지」란 접미사는 어간인 [소·말·개]에만 붙어 [송아지·망아지·강아지]로 그 동물의 새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외의 동물에서는 원래 그 동물 이름과는 전혀 다른 새끼이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뱀장어·누에]의 새끼만 각각 특색적인 접두어를 붙인 [실뱀장어·개미누에]로 호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미사「-아지」의 특징을 함께 종합한다면 '돼지아지'란 말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낱말은 '돼지'란 낱말에 단지 접미사「-아지」를 붙인 결과에 불과하며, 둘째로 그렇게 쉽게 사용하게 될 경우 [고양리아지·거위아지·오리아지·당나귀아지·낙타아지] 따위로 무수히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며, 셋째로 일본어 '仔'字의 쓰임과 순서만 틀릴 뿐 같기 때문에 본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실뱀장어·개미누에]와 같은 방법으로 [새끼돼지·아기돼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접두어가 아니므로 그러한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돼지의 새끼'를 뜻하는 낱말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요즈음 외국에서는 소형돼지로 개량하여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아들'의 낮춤말로 '豚

*수원 갈촌동물병원

표 1. 동물명칭(호칭)에 관련된 난말들(우리말)

구분	동물이름	새끼이름	그밖에 부르는 이름들
집 집 승	소	송아지	독우(牝牛), 동부래기, 목매기송아지(목매기), 어스럭(어석)소, 어석송아지, 잇부르기(송), 잇송아지, 부룩소(송), 부룩송아지, 부사리, 길치, 황소, 애송아지.
	말	망아지	목매아지(목매지).
	개	강아지	개새끼.
	돼지	(동아지?)	자돈(仔豚), 돈(악대돈), 돌(애돌), 걸귀(경산돈), 도야지, 도투, 돼지, 돈(豚), 제·저(猪).
	닭	병아리	숨병아리.
들 집 승	곰	농소니	
	범 노루 사슴	개호주	느렁이(우), 본노루(늑은것). 느렁이(우).
날 집 승	평	꺼병이	까투리(우), 장끼(송), 덜께기(늑은것).
	매 새매		초고리(작은것). 익더귀(우), 난추니(송).
물 고 기	가오리	간자미	
	갈치	풀치	
	고등어	고도리	
	방어	마래미	
	뱀장어	실뱀장어	
	뱅어		정치(알 안뻐 것).
	송사리		추라치(큰것).
	승어	모쟁이	
열목이	팽팽이	산치(큰것).	
옹어	모롱이		
잉어	발강이		
그 밖	꿀벌		수여리(우).
	매미		병어리매미(우).
	누에 이	개미누에 가랑니	

*참고사전 : 대국어사전(현문사, 1981).
동아프라임국어사전(1988).
동아새국어사전(1994).

표 2. 접미사 「-아지」의 뜻과 사용된 어간의 특징

뜻	[동물을 뜻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새끼'·'작은 것'·'낮은 것' 등의 뜻을 나타냄.
특징	① 현재 가축종 외자 이름인 [소·말·개]에 붙어 새끼를 뜻하는 난말로 [송아지·망아지·강아지]에만 사용되고 있음. ② 어간은 한 글자(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며[송·망·강], ③ 어간의 초성은 [소·말·개]의 초성과 같고, ④ 어간의 중성은 [소·말]에서는 같으나, [개]에서는 '애'의 '이'가 탈락되어 '아'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므로 중성에는 밝은 홀소리(양성모음)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중성은 모두 '이음'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소·개]에는 '이음'을 덧붙이고, [말]에서는 '리음'이 탈락되고 '이음'으로 바뀌었다.

兒'로 쓰고 있음을 볼 때, 돼지도 귀엽고 예쁜 동물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아지」를 붙여 돼지의 새끼를 뜻하는 낱말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며, 또한 「-아지」의 뜻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듯 합니다.

‘돼지’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낱말도 많습니 다(표 1). 즉, 1)옛날 말로서 돈(악대돈: 불알 간 돼지), 돌(애돌: 한 살된 돼지), 2)방언으로 사용되었던 도아지·도투·되지, 3)한자어로 돈[豚肉 돈콜레라], 제[豬肉볶음], 저[豬肉] 그리고 4)웃놀이에서 사용되는 결말로 ‘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지」의 특징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낱말은 외자이면서 조상의 일이 담긴 말인 [돌·돌·도]입니다(표2). 따라서 외자인

[돌·돌·도]의 어간에, 초성은 ‘ㄷ’으로, 중성은 밝은 홀소리인 ‘ㅓ’로 하고, 종성은 [ㄷ·ㅌ]받침을 탈락시키고 대신 ‘ㅇ’을 붙인 다 음「-아지」를 달면 ‘돼지의 새끼」를 뜻하는 말로서 [동아지]가 탄생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짧은 소견이 우스꽝스럽지는 않습니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시면 앞으로 ‘돼지의 새끼」란 신생어로 ‘동아지」라 불러 주십시오. 또한 저의 생각이 자가당착에 빠진 상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개진의 고견을 주십시오. UR타결 후에 살아남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身土不二」 운동에 동참하는 농민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안내

「착유환경과 원유위생관리」 출간

손봉환 박사(인천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장)가 집필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비매품)가 발행한 「착유환경과 원유위생관리」가 출간되었다. 원유위생관리와 유량증가 그리고 우유의 신선보관을 위한 착유생리, 정상착유방법, 유방염 관리, 착유기 다루기, 우유의 냉각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있는 본서는 약 400쪽이다.

그러나 우리 말로된 기술지침서가 없었던 차제에 실무와 이론을 정리한 본 책은 정부시책과도 시의에 맞아 낙농가와 지도자들에게 큰 힘이 될것으로 보인다.